

미군, 이란 화물선 함포 쏜 나포...이란 “휴전 위반·곧 보복”

트럼프 “美봉쇄 뚫으려던 선박”...무력 동원 저지 알려진 건 처음
협상·확전 기로서 변수될 가능성...트럼프, 협상 타결 낙관론도

대이란 해상봉쇄 작전을 벌이고 있는 미군이 2주 휴전 종료를 앞둔 19일(현지시간) 이란 화물선을 함포 사격해 나포했다.

20일 협상이 열릴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이란이 자국에 대한 해상봉쇄부터 풀라고 반발하는 상황에서 이란 선박에 대한 미군의 발포와 나포가 협상 재개 여부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란은 보복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오늘 길이가 약 900피트(약 275m)이고 항공모함만큼 무게가 나가는 ‘투스카’라는 이름의 이란 화물선이 우리의 해상봉쇄를 뚫으려 했고 잘 안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 스프루언스가 오만만에서 투스카를 가로막고 정지하라는 정당한 경고를 했으나 이란 선원들이 응하지 않았고 우리의 해군 군함이 기관실에 구멍을 내 멈추게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금 미 해병대가 그 선박을 잡고

있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고 있다”면서 “해당 이란 화물선이 불법활동 이력으로 미 재무부의 제재 목록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곧 이어 미 중부사령부가 구체적인 경위를 발표했다.

17노트의 속력으로 이란 남부 바다르 아바스로 가던 투스카호에 미군의 봉쇄를 위반하고 있다고 경고했으나 6시간 동안 따르지 않았고 미군이 기관실 소개(疏開)를 명령한 뒤 구경 5인치(127mm)의 MK45 함포를 여러발 쏘 추진장치를 무력화했다는 것이다.

이후 미 31해병원정대가 투스카호에 승선했으며, 투스카호는 억류된 상태라고 중부사령부는 설명했다. 주일미군에 배치돼 있던 31해병원정대가 중동으로 이동해 대이란 해상봉쇄 작전에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중부사령부는 미군이 신중하고 전문적이며 비례적 방식으로 행동했다면서 대이란 해상봉쇄 개시 이후 25척의 상선에 회항 또는 이란 항구의 복귀를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19일(현지시간) 미 해군 구축함 스프루언스(DDG 111)가 아라비아해 북부에서 이란 국적 화물선 투스카(Touska)호를 요격하고 있다. /REUTERS=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1일 ‘2주 휴전’의 종료를 앞두고 대이란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 같은 작전을 감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 군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한 뒤 선박들을 공격한 데 대한 대응조치로도 해석된다.

미국은 이전에도 이란 항구에서 출항해 미군의 봉쇄를 뚫고 항해하려 한 이란 선박 20여척을 회항시켰으나, 무력을 사용한 사례가 알려진 것은 처음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다만 협상이나 확전이나의 기로서 이란 측이 휴전 합의 위반을 내세워 어떤 대응 조치에 나서느냐가 협상 재개 여부에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담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의 대변인은 국영매체를 통해 미군의 발포가 휴전 합의 위반이라며 곧 대응하고 보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응 조치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상봉쇄를 풀라는 이란을 상대로 오히려 무력을 동원한 이란 상선 공격 및 나포를 감행하면서 2주 휴전이 끝나기 전에 미국과 이란 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란이 협상에 무게를 두고 보복 수위를 조절할 경우 11일 결렬됐던 협상이 이르면 20일 재개될 수도 있지만 군사적 긴장 고조 속에 자칫 그렇지 않아도 아슬아슬하던 협상 모멘텀이 깨져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대이란 협상 대표단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고 가고 있으며 20일 저녁 협상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란이 협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모든 발전소와 교량에 폭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프와 의 이날 인터뷰에서는 협상 결과에 대한 낙관론을 폈다.

그는 “괜찮게 느끼고 있다. 합의의 기본틀이 잡혔다. (협상 타결을) 완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말레이시아 수상가옥 빈민촌 큰불...집 1천여채 전소

이재민 9천여명...사망자는 없어

말레이시아의 빈민촌인 수상가옥 마을이 19일(현지시간) 큰 불에 휩싸여 약 1천채의 집이 모두 타고 9천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현지 소방 당국 등이 밝혔다.

현지 매체 스타와 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32분께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사바주 산다칸 바닷가 지역의 수상가옥이 밀집한 감풍 바다가 마을에 불이 났다.

당시 불길이 강풍을 타고 뿔뿔하게 들어선 목재 수상가옥들을 순식간에 휩쓸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구조대가 출동했으나 길이



19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산다칸의 한 해안 마을에서 발생한 화재로 가옥이 파괴된 후 잔해만 남아있다. /REUTERS=연합뉴스

좁아 소방차가 현장에 직접 접근하지 못했으며, 썰물로 소방 용수를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

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4시께 불을 꺾지만, 약 4만여㎡ 지역의 집 약 1천채가 전소돼 9천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다만 주민들이 대피해 사망자는 없었고 소지품을 챙기려고 애쓰거나 다른 사람들을 돕던 몇몇이 경상을 입었다고 당국은 전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빈곤층 주민들이 사는 곳으로 잘 알려진 이 마을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페이스북에서 “현재 최우선 과제는 피해자의 안전과 현장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이라면서 “연방정부가 사바주 당국과 협력해 이재민들에게 최대한 빨리 임시 숙소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美루이지애나서 총격 참극...자녀 7명 등 8명 살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한 남성이 자녀 7명을 포함한 어린이 8명을 총기로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미국 CNN방송과 뉴욕타임스(NYT)는 19일

(현지시간) 슈리브포트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만 11세 이하 미성년자 8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희생자는 3-11세 남아 3명과 여아 5명으로, 이

가운데 7명은 총격범인 샤프트 엘킨스(31)의 자녀, 나머지 1명은 이들과 사촌지간으로 확인됐다. 엘킨스의 아내가 가장 먼저 총격으로 다쳤고, 아이들을 데리고 있던 또 다른 여성도 위독한 상태다.

엘킨스는 총기난사 후 차량을 탈취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총에 맞아 사망했다. /연합뉴스

호르무즈 긴장 고조...국제유가 6-7% 급등세

미국과 이란 간 휴전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한국 시간 20일 오전 8시30분 현재 전장 대비 6.14% 급등한 배럴당 95.93달러를 나타냈다.

5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선

물은 배럴당 90.01달러로 전장 대비 7.35% 급등했다.

지난 17일 브렌트유와 WTI 선물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소식에 각각 9.1%, 11.5% 급락한 바 있다. 하지만 주말 동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공격하고 미국이 이란 관련 선박을 나포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급등세로 반전하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日기업 대졸채용 확대 ‘주춤’...“AI 도입 등 영향”

인공지능(AI) 도입 등의 여파로 대졸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일본 회사가 늘려갔다는 곳보다 많아지며 최근 불었던 채용 시장 혼동이 식는 분위기다.

20일 교도통신이 일본 주요 기업 11곳을 대상으로 내년 신입사원 채용(2027년 4월-2028년 3월 입사)에 관해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년도 채용 규모보다 줄어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23%(25개 사)로 지난해 조사보다 11%포인트 증가했다.

대졸 신입사원을 전년보다 더 뽑겠다는 기업

은 16%(18개 사)에 그쳤다. 같은 조사에서 채용 규모 축소비율이 확대보다 높아진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다.

채용 규모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는 35%(39개 사), ‘미정’은 22%(24개 사)였다.

교도통신은 일본 회사들이 겪었던 인력 부족 현상이 한풀 꺾인 기미가 보인다며 여기에는 일부 회사에서 AI가 업무를 대체하기 시작한 영향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본 채용 시장에서 우수한 졸업생 확보 경쟁은 아직 치열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 알로에